

우주는 21세기 패권의 새로운 각축장

# 나로호 성공엔 대한민국 신흥 우주강국 반열에

### 美·러 우주산업 투톱... 中·日 맹추격

냉전시절 미소 양국의 '치킨게임'의 장이었던 우주 개발에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국가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가 안보를 넘어 다양하고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세계 각국은 우주 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여전히 견제할 우주강국 미·러= 군비경쟁을 통해 우주 산업 기술을 확보한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우주 산업의 투톱(TWO-TOP)으로 꼽힌다. 지난해 8월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를 화성 표면에 안착시킨 미국은 2016년까지 4억2500만 달러(한화 약 4613억원)를 들여 화성 탐사 로버 '인사이트'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며 한

단계 높은 우주 기술력을 과시했다. 정부의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로 인해 각종 우주탐사 계획이 축소·취소됐지만, 미국은 앞으로 보잉, 스페이스X, 시에라네바다 등 민간 기업과 협력으로 우주 개발 산업화 및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러시아는 2012년 3월, 우주산업에 연 최대 2000억 루블(한화 약 7조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 2011년 위성 '포브스'와 탐사선 '포브스-그룬트' 발사에 실패하며 '우주 강국'으로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올해 자국 로켓의 대표 격인 프로톤을 대체할 차세대 로켓 '앙가라'를 선보일 계획이

다. 더불어 2015년까지 극동 아무르주에 새로운 우주기지인 '보스토치니'를 완공하고, 2030년까지는 달 표면에 자국 우주인을 안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세계 각국 맹추격=이런 투톱 체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는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나라는 중국이다. 재정 위기로 인해 타국이 우주 개발에 머뭇거리는 동안, 중국은 빠른 속도로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혔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최초의 우주인 양리웨이를 태운 '선저우 5호'를 우주로 보낸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유인 우주선 '선저우 9호'와 실험용 우주 정거장 '톈궁 1호'의 도킹에 성공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중국은 올해 '선저우 10호'와 달 착륙 탐사선 '창어 3호'를 발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6년께 자체 우주 실험실을 건립하고, 2030년 전까지 달에 자국 우주인을 보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일본의 로켓 기술은 이제 다른 나라의 위성을 대신 발사해주고 돈을 받는 상업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5월, 한국의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를 싣고 우주로 날아간 것도 일본의 'H-2A' 로켓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우주전략 실행을 선포하고, 주력 로켓인 H-2A 후속 로켓을 개발하기로 발표하는 등 전통의 우주강호로서의 면모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974년부터 프랑스, 독일 등으로 구성된 유럽우주기구(ESA:European Space Agency)를 통해 우주개발을 추진해 왔다.

ESA에서 사용하는 발사체는 2010년 천리안을 싣고 우주로 날아간 '아리안 5호'와 '소유즈'가 있다. 특히 '아리안 5호'는 1996년 첫 발사 이후 64번 발사 가운데 4건 밖에 실패하지 않을 만큼 높은 성공률을 자랑한다.

ESA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착륙시키고, 2033년까지 태양계의 모든 위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낸다는 '오로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란은 유인 우주선 발사 전 단계로 통하는 동물(원숭이) 로켓 탑승실험을 예고했고, 2004년 'VSB-30' 로켓을 발사해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우주 개발 국가로 기록된 브라질도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내년까지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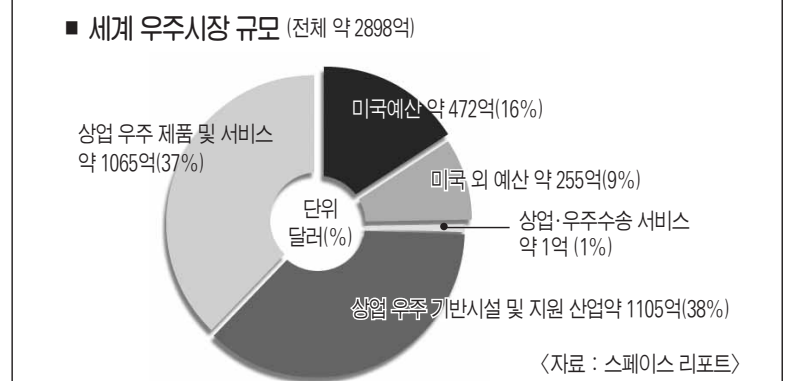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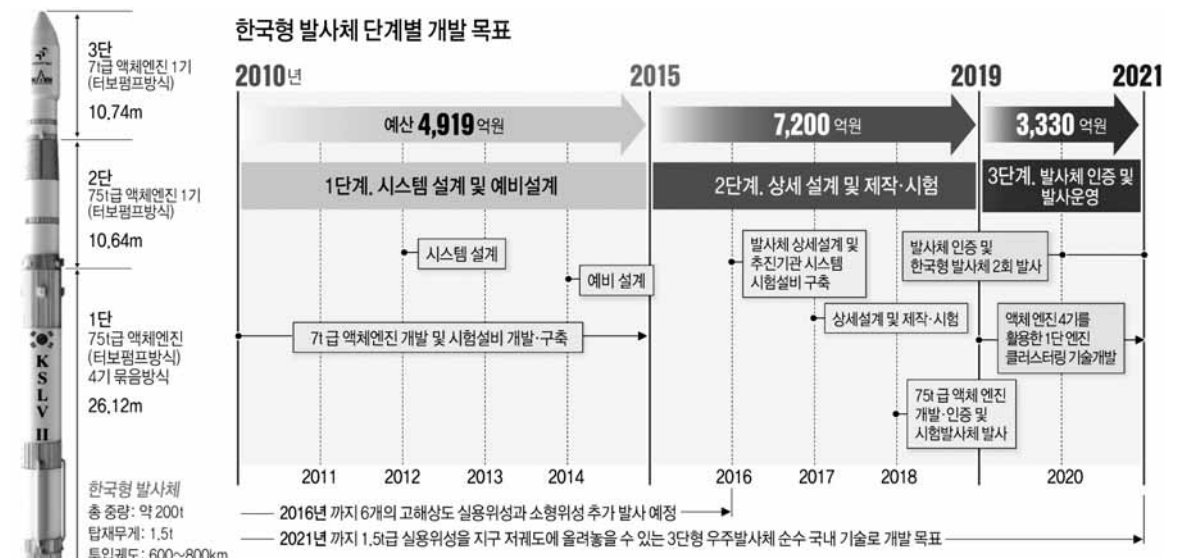
## 나로호 넘어 독자 발사체까지

### 2021년까지 3단계 구분... 1조5000여억원 투입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목표는 한마디로 '우리 위성, 우리 발사체, 우리 땅'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우주개발의 효율적 진흥과 우주물체의 체계적 이용·관리 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다. 오는 30일 발사 예정인 나로호(KSLV-I)는 우리나라가 독자 발사체를 쓰기 위한 중간단계라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계획(2010~2021년)에

따르면 2010년 착수한 '한국형발사체(KSLV-II)' 개발은 1.5t급 실용위성을 고도 700km 전후의 지구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독자적 우주발사체 개발을 목표로 한다. 2010~2021년까지 3단계로 구분되며 총 1조500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형발사체는 200t의 무게로 3단계로 구성되며, 직경은 2.6m 가량이다. 1단부터 2단까지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75t급 액체엔진이 사용된다.

2018년까지 75t급 액체엔진 개발 후 성능을 검증하고, 2021년까지 한국형발사체를 조립해 우주로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의 R&D 예산 중 우주기술개발 관련 예산은 167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0.3% 증가했다.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에 800억 원, 다목적 실용위성과 정지궤도 위성 등 인공위성 개발 사업에는 약 665억 원이 배정됐다.



## 우주산업 시장규모 2898억달러

### 방송통신망·일기예측·군사장비 등 활용폭 넓어져

스페이스 리포트에 따르면 세계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는 2898억 달러(2011년 기준)로 2010년 2582억 달러보다 12% 증가했다. 최남미 항공우주연구원 정책기획부 박사의 '2011년 세계 각국의 우주분야 투자 및 우주산업 현황' 논문에 따르면 2010년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예산은 71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 374억 달러에 비해 1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한 수치다. 500만 달러 이상 우주 분야에 투자한 국가 수도 2010년 48개국으로 10년 전(2000년 24개국)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하는 등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우주 산업은 기계, 전기, 전자 등 광범위한 산업분야의 신기술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타 분야에 비해 기술과금 효과가 매우 커 우주산업시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박사는 "우주산업은 방송통신망 구축, 일기 예측 등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군사 장비 등 군까지 활용폭이 넓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경향을 풀이했다.

##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 경매·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이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사구정원) 광주 서구 농성동 64-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검색

## 누구나 갖고 싶은 땅을 눈여겨 보십시오!

I. 나주혁신도시-상업용지

- 메인도로3면코너 1080㎡ 매매가 24억5천만원
- 호수공원테라스거리 705㎡ 매매가 14억9천만원
- 호수공원내3면코너 1288㎡ 매매가27억3천만원
- 메인도로코너 1056㎡ 매매가 23억9천만원

II. 나주혁신도시-근린생활용지

- 배후아파트상권 640㎡ 매매가 11억6천4백만원
- 배후아파트상권 610㎡ 매매가 11억6천5백만원
- 배후아파트상권 720㎡ 매매가 12억원

III. 남평강변도시- 상업용지및근린생활용지

- 핵심상권코너 529㎡ 매매가 5억4천
- 핵심상권코너 449㎡ 매매가 4억원
- 핵심상권코너 416㎡ 매매가 4억1천만원
- 핵심상권코너 448㎡ 매매가 5억8천6백만원

나주혁신도시,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번지

## 목욕탕 매매

15,000세대 독점 상업중으로 실수요자 최적!

- 대 지: 750평
- 건 물: 1350평
- 용 자: 20억~25억 (감정가 58억원)
- 매매가: 40억원
- 실 준비금 15억~20억원 까지

① 주월동 풍암지구 입구 대로변 코너 상가 대지89평, 건평 292평 매가 6억3천  
② 광산구 운수동 자연녹지 도로 접 전1,382평 매가 8억5천(공장, 창고, 기든 등 적합)  
③ 세하동 서광주역 뒤 자연녹지(그린벨트) 도로 접 전(전)1,957평 매가 5억3천(투자최적)

**행운공인중개사**  
011-642-7777

## 가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금매

“담양” 무인텔  
대 지 : 5,048㎡  
연건평 : 2,474㎡  
객 실 : 32개  
현 상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담후 결정

염전 금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피어 사거리  
010-8289-8549

##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 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영일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